

新·増設 주춤 稼動率 높아져

企劃調査部

전국의 레미콘業界는 작년 한해동안 新增設된 생산능력보다 出荷증가량이 앞질러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稼動率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조사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7년말 현재 전국레미콘업계의 출하실적이 前年對比 22.5%의 높은 신장율을 나타냈으나 베퉈플랜트의 생산시설증가율은 10%에 불과하여 가동율이 전년보다 5.1% 높아진 49.5%를 나타냈다.

특히 전국의 레미콘생산능력 신장율이 83년 이래 5년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10%에서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需給의 안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出荷量〉

87년도의 전국레미콘 총출하량은 33,752,626 m³로 집계되어 전년도의 27,542,395m³ 보다 22.5%의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m³당 평균단가 3만원으로 계산할때 레미콘의 총매출액은 1조

원이 넘는 방대한 시장이다.

전국 출하량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서울·京仁지역이 50.1%인 16,925,030m³를 차지했으며 釜山, 慶南지역이 17%인 5,747,775m³로 이들 지역에 전체의 67.1%가 몰려 있어 수요처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7년 한해의 출하증가율은 濟州 66.9%, 江原 57% 등으로 非도시지역이 높은 반면 釜山 8.2%, 서울·京仁지역 16.5%로 도시지역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촌, 산간지역에서도 레미콘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장당 연간 평균생산량은 165,450m³로 1개 공장에서 평균 50여억원어치의 레미콘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釜山지역이 공장당 연간 279,247m³로 가장 많이 출하했으며 서울이 272,984m³, 大邱 182,460m³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레미콘공장이 대규모시설을 갖추고 대량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江原지역이 공장당 평균 59,213m³로 가장 적게 판매했으며 이어 濟州 76,001m³, 全北 88,601m³, 慶北 91,417m³, 忠南 98,197m³ 등으로 나타나 지방일수록 좁은 시장에서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빚는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 레미콘업체의 경우, 공장당 연간 출하량이 평균 27,500m³ (86년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6배가량 높은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장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점차 공장당출하량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미콘工場 지방으로 확산

〈生産能力〉

전국레미콘업체의 생산시설은 87년에 68,220,000 m³/년으로 전년보다 10%신장율을 보였으나 대도시지역에서는 낮거나 줄어든반면 江原, 慶南, 北 등 내륙지방의 중소도식에서 확장과 신설이 계속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협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87년도에 베쳐플랜트시설능력은 서울·京仁지역이 5%가 늘어났을뿐 釜山과 光州지역이 0%, 大邱지역은 오히려 4.7%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江原지역은 69.5%, 慶南 26.3%, 慶北 22.7% 등으로 생산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공장수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증설에 따른 대·중소 기업체간의 마찰이 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조정때 따른 정부의 개입까지 야기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

〈稼働率〉

레미콘생산능력과 출하실적을 비교한 전국레미콘업체의 가동율은 82년이래 계속 낮아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높아져 49.5%(1일 8시간×250일기준)를 기록했다.

낮아지기만 하던 가동율이 반전하여 높아진 것은 레미콘需給에 따른 신증설을 자제한 결과이겠으나 지역간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지역별로 보면 신증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釜山이 72.3%로 가장 높고 서울·京仁이 55.9%로 비교적 가동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증설이 급격하게 늘어난 江原지역이 31.4%로 가장 낮았다.

특히 중소기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江原, 全北 (34.8%), 忠南(36.3%), 大邱지역(40.1%)의 가동율이 전국평균보다 밀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시멘트2차제품생산업체, 골재업자등이 레미콘신규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 앞으로 레미콘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방공장의 평균가동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공장당 매출량도 격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수지와 직결된 가동율이 떨어져 작년 한해동안 도산된 5개업체와 흡수 통합된 중소기업체가 대부분 가동율이 낮은 이들 지역의 업체들이었다.

따라서 레미콘의 지역편중을 막고 균형적인 수급안정을 위해서 업계의 자율적인 대책강구가 요망되고 있다.

〈價格動向〉

레미콘업체는 매년 높은 賣出신장율을 보여 87년도에 외형이 1조원을 넘어서는 방대한 시장

으로 부상했으나 경영상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능력의 신증설에 따라 업체간의 치열한 물량확보전은 덩핑으로 인한 가격인하, 결재기간연장등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업계는 해마다 시중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비례하여 관수가격도 매년 낮게 책정되어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등 심각한 적자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투매현상으로서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87년도의 시중민수가격은 82년가격對比 15%가량 떨어진 m³ 당 31,675원(7개 주요규격 평균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등 시장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졌다.

또한 87년도에 조달청과 계약한 관수 가격은 82년대비 무려 17.83%가 하락된 29,017 원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이는 시중거래 민수 가격보다 무려 8.4%가 낮은 불합리한 가격체제를 이루고 있어 이의 시정을 업체는 조달청에 관수가격 수정계약을 서둘러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서울·경인 지역의 경우 업체의 경영악화상태가 심화되고 있어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와 가격안정에 따른 업계의 자구책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증설확대-거래질서문란-가격하락-적자도산등으로 이어지는 레미콘산업계의 병폐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안정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 정착하여야 한다는 업계 전체의 굳건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87년도 공장당 평균출하량

(단위 : m³/년)

서울·경인	272,984
강원	59,213
충북	101,103
충남	98,197
전북	88,601
전남·광주	130,301
대구	182,460
경북	91,417
부산	279,247
경남	140,552
제주	76,001
전국 평균	165,454

◇ 년도별 레미콘 업체 현황

구분 년도	회사수	공장수	생산능력(천m ³ /년)	신장율 (%)	생산능력 (千m ³ /년)	신장율 (%)	가동율(%)
80	14	37	10,790	11.7	5,878	5.9	54.5
81	19	47	14,510	34.5	7,142	21.5	49.2
82	25	57	17,030	17.4	9,543	33.6	56.0
83	39	85	26,292	54.4	14,690	53.9	55.9
84	56	120	39,334	49.6	18,155	23.6	46.2
85	79	148	50,746	29.0	22,983	26.6	45.3
86	106	182	61,992	22.2	27,542	19.8	44.4
87	118	204	68,220	10	33,753	22.5	49.5

※ 생산능력및 가동율 : 1일×8시간×250일

전국레미콘생산업체 실태조사 총괄현황표 ('87년도)

구분 지역별	업 체 수				공 장 수				년 간 생 산 시 설(B/P)			
	'86년도	'87년도	증감수	증감율 (%)	'86년도	'87년도	증감수	증감율 (%)	'86년도	'87년도	증감량	증감율 (%)
서울·경인	33	36	3	9.1	58	62	4	6.9	28,820,000	30,300,000	1,480,000	5.1
강 원	10	10	-	-	11	15	4	36.4	1,670,000	2,830,000	1,160,000	69.5
충 북	7	9	2	28.6	9	11	2	22.2	2,240,000	2,600,000	360,000	16.1
충 남	13	15	2	15.4	17	20	3	17.6	4,572,000	5,412,000	840,000	18.4
전 북	8	8	-	-	11	12	1	9.1	2,818,000	3,058,000	240,000	8.5
전남·광주	16	14	△2	△12.5	19	19	-	-	5,370,000	5,490,000	120,000	2.2
대 구	8	8	-	-	8	8	-	-	3,820,000	3,640,000	△180,000	△4.7
경 북	13	17	4	30.8	14	19	5	35.7	3,436,000	4,216,000	780,000	22.7
부 산	7	7	-	-	8	8	-	-	3,090,000	3,090,000	-	-
경 남	19	21	2	10.5	22	25	3	13.6	5,436,000	6,864,000	1,428,000	26.3
제 주	4	5	1	25	5	5	-	-	720,000	720,000	-	-
합 계	106	118	12	11.3	182	204	22	12.1	61,992,000	68,220,000	6,228	10

※ ① 합계업체수는 지역중복을 피한 숫자임.

② 연간생산시설 및 가동율 : 1일 × 8시간 × 250일

R/T 보유대수(대)				출 하 실 적(m ³)				가동율(%)		
'86년도	'87년도	증감수	증감율(%)	'86년도	'87년도	증 감 량	증감율(%)	'86년도	'87년도	차 이
3,098	3,207	109	3.5	14,530,015	16,925,030	2,395,015	16.5	50.4	55.9	5.5
152	190	38	25	565,736	888,199	322,463	57	33.9	31.4	△2.5
188	215	27	14.4	880,145	1,112,135	231,990	26.4	39.3	42.8	3.5
299	356	57	19.1	1,543,316	1,963,943	420,627	27.3	33.8	36.3	2.5
204	206	2	1	841,311	1,063,213	221,902	26.4	29.9	34.8	4.9
315	329	14	4.4	1,943,996	2,475,712	531,716	27.4	36.2	45.1	8.9
287	295	8	2.8	1,141,581	1,459,678	318,097	27.9	29.9	40.1	10.2
209	264	55	26.3	1,361,966	1,736,934	374,968	27.5	39.6	41.2	1.6
369	369	-	-	2,065,439	2,233,977	168,538	8.2	66.8	72.3	5.5
427	507	80	18.7	2,441,198	3,513,798	1,072,600	43.9	44.9	51.2	6.3
51	59	8	15.7	227,692	3,380,007	152,315	66.9	31.6	52.8	21.2
5,599	5,997	398	7.1	27,542,395	33,752,626	6,210,231	22.5	44.4	49.5	5.1